

一、執義公派譜序文

옛말씀에 花樹同根이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다같이 執義公을 派祖로 모시는 같은 後孫으로서 서로가 자기의 存在와 系統을 確認하고 우려려 爲先하며 同族間에 相互尊重하며 相扶相助하는 美德을 더욱 敦篤히 하고자 하는 것은 至極히 自然스러운 도리라 아니할 수 없다.

謹按하옵건대 우리의 派祖 執義公께서는 西紀一四二四(世宗六甲辰)年에 慶尚道龍宮鄉弟에서 誕生하시고 ね분의 아우님을 두셨고 두분의 누님을 두어 七男妹의 맏이신데 季弟 諱 蘭茂께서 出生하신 것이 公이 二十歲되시던 一四四三(世宗二五癸亥)年이고 그해에 先妣 貞敬夫人께서 卒하시고、公께서 二十七歲되시던 一四五〇(世宗三二庚午)年에 祖妣 貞夫人 商山朴氏의 喪을 當하시고 이어 三十歲되시던 一四五三(端宗一癸酉)年에 天喪을 만났으며 三十四歲되시던 一四五七(世祖三丁丑)年에 長子 昭平公 諱 光世께서 태어나시니 이와같이 어려운 집안形便에 公이 아니었던들 그 누가 전하여 낼 수 있었으랴.

그럼에도 公께서는 일찍이 學問에 뜻을 두어 六藝를 익히시고 性理學을 專攻하시니 남달리 뛰어나신 人品이 우러러 보일지며、一四五〇(世宗三二庚午)年에 生員試에 及第하시고 服을 벗은 다음 官에 나아가 集慶殿 叅奉으로 出仕하시어 慶州判官、梁山郡守、金山縣令을 거치시고 內職으로 옮겨서 司贍寺副正、司憲府監察、執義등을 歷任하시고 燕山朝에 이르러서는 禮曹叅議、承政院左承旨등이 除授되시었으나 君王의 品行이 剛直하지 못함을 개탄하고 辭職하여 오직 學問



에만 沈潛하다가 一五〇〇(燕山六 庚申)年에 年歲七十七歲로 卒하시어 지금의 慶北尙州郡化東面以所里에 喪事모시니 燕山主도 애통하여 吏曹叅判 兼 同知義禁府事를 特 除하였으나 中宗이 反正後에는 더욱 品階를 높여 議政府左贊成 兼 經筵春秋館 觀象監事와 都摠府都摠管 世子師로 追贈되시었으니 公께서 國家社會에 寄與한 功勞가 至極했음을 넉넉히 헤아리겠다.

더우기 公께서는 아우님 四兄弟분을 가르쳐서 都事蘭秀、吏判蘭宗、僉正蘭元、府使蘭茂 등으로 모두 높은 官職에 오르셨으며、特히 셋째 아우님 諱 蘭宗은 連四回에 걸쳐서 文武兩科에 及第하시고 東萊府院君의 封君되기 까지는 陰陽으로 公의 보살피신 蔭德이 숨겨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어서 東萊鄭門에 名公巨卿이 속출하여 歷史속에 燦然하니 公께서 鄭氏門中中興에 이바지한 功勞는 至大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世代에 이르러 昭平公 諱 光世의 婚姻의 六禮와 三年喪 그리고 四代奉祀의 禮法規度を 頒布하기까지의 智謀와 磨齋公 諱 忠樑의 文章 德業、竹窓公 諱 弘衍의 學業、忠憲公 諱 弘佐의 文學孝行、休翁公 諱 弘翼의 忠貞直諫 등은 우리가 이어갈 精神의 바탕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社會가 頽廢하여 反倫理의 道義失蹤風潮가 만연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拘擬됨이 없이 오로지 자랑스러운 先祖의 精神과 品位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恒常正道를 본받아 繼承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며 自重自展하고 겸손하며 人類社會에 이바지하는 거울이 되기를 祈願하면서 所懷의 一端을 披瀝하는 바이다.

끝으로 族譜刊行의 舉宗의 大役事實務에 誠心誠意를 다하여 奉仕하신 實務任員 및 各派를 代

表하여 收單과 編輯에 從事하신 任員여러분의 勞苦를 높이 致賀하고 그리고 이번 譜事에 物心
兩面으로 支援하고 便宜를 提供한 全宗人여러분께 深深한 謝意를 表하면서 특히 이번 族譜刊行
事業에서 沂秀副會長의 패기와 執念、 그리고 鶴秀副會長등 指導体制 任員들의 知謀가 成功的 지
름길 이 되었음을 默視할 수 없기에 이에 附記 讚揚한다。

一九九一年(辛未)十一月十五日

東萊鄭氏 執義公派 宗議所 所長 執義公 十八代孫 東谷 夏福 謹序
東萊鄭氏 執義公派 譜編纂委員會 會長

五、舊譜序文

東萊鄭氏大譜序文

가、乙酉始刊譜序

東萊之鄭^이。粵自麗朝僕射公^{으로}始爲名臣^{하고}。四子登第^{하여}。乃爲簪纓世族^{되므로}。厥後^에譜牒^이不明^함。有郭崇韜^의拜子儀之誚^{하여}。識者^가病焉^{니이러}。一日^에引儀興善^이來言於余曰。我族^이雖鉅^인門系^가多舛^함。欲爲釐整^인。恐汗漫莫究^{일세}。近取五代祖^인判書公世系^{하여}。其子孫^을悉加搜訪^함。或京或鄉^에。其麗^가寔繁^{이라}。聞見之外^에。更具一价^{하여}。修書于內外諸族^{하니}。報答^이畢至^{하고}。其中^에有未盡者^는。乃躬自辨詰其實而後^에已矣^{하니}。其用心^이可謂勤矣^{로다}。再從弟^인純聚^이。幹而有文^{니이러}。引儀^와謀與入梓^{하여}。閱一歲而告成^에。父父子子^와兄兄^과弟弟^가。粲然不紊^{하니}。眞一代之寶^라。良可愛也^다。余^가嘗觀古人^의爲譜^{하니}。或倣漢代^의年表^{하고}。或以大宗小宗^{으로}分爲之^{하여}。事例雖殊^나。其所以分其氏族^{하여}。考其世次^{하얀}。則一也^라。我國^이男婚女嫁^를。舉爲族類^{하여}。其姓名^을殆不可一一遍識^{이라}。繼其宗者^이宜各詳其所自出^{해서}。以盡本派^한。然後^에與此書^로合而爲一^{하면}。則可以功省而事備矣^{리니}。吾輩當先加敦睦^{하되}。由親及疏^{하여}。自近而遠^{하면}。庶不負作譜之義^{리니}。諸君^은以爲如何^오。

萬曆十三年二月^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鄭惟吉^은謹序^{하고}

乙酉譜序 변역문

東萊鄭氏는 僕射公께서 高麗朝에 벼슬하여 처음으로 名臣이 되었고 内分 아드님이 모두 科擧에 及第하고부터 代代로 높은 벼슬하는 집안이 되었으나 여태껏 譜牒을 분명히 하지 못하여 마치 郭崇韜가 郭子儀의 子孫을 들은 것과 같아서 관심있는 이들이 걱정한더니 어느날 三從인 引儀 벼슬하는 興善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宗族이 비록 巨族이지만 分派가 많아서 간추려 바로 잡고자 해도 世代가 오래되어 汗漫해질까봐 속깊이 따지지 못하다가 요사이 五代祖인 判書公以下の 世系만을 가지고 그 子孫을 京鄕各地로 두루 찾아보니 그 수효가 진실로 번성하므로 듣고 보는 외에 다시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内外 諸族에게 보내었더니 回答편지가 모두 왔을 뿐더러 그중에 미진한 사람들은 몸소 찾아왔길래 그 실상을 분명하여 問疑해서 바로잡았읍니다」 하니 그 마음씀이 매우 근심하다 이르게고 再從弟인 純聚이 「이 일을 말아보겠습니다」고 편지하더니 引儀와 더불어 상의해서 인쇄에 들어가서 一年만에 이 일을 마쳤으니 父의 父됨과 子의 子됨과 兄의 兄됨과 弟의 弟됨이 확연하여 헛글어짐이 없어서 참으로 이 시대의 보배이니 실로 소중스럽도다.

내 일찌기 옛사람들 보첩지은 것을 보니 漢나라의 年表를 본뜨기도 하고 太宗과 小宗의 法을 따르기도 하였으니 보첩을 지은 事例는 비록 다르더라도 그 氏族을 가리고 그 世代의 次序를 상고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男婚女嫁는 거의 氏族의 類를 위하였던바 그 姓名은 자못 一一히 두루 알수 없고 그 宗統을 이은 자는 所自出을 자세히 하여 本派를 확실하게 안 연후에야 이 책으로 더불어 한가지로 符合될 것이니 가히 功을 덜 들이고 일은 完備하였다고 하더니 우리들은 술선하여 敦睦을 힘쓰고 有服親을 좇아서 遠族에게 미치기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곳에 이르듯이 하여 무릇 족보를 만든 참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려분은 함께 힘씀이 어찌하리요.

一五八五(宣祖十八)乙酉年 二月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事監 春秋館事 鄭惟吉은 삼가 序文을 撰한다.

乙未大同譜序

自世教衰而宗法壞九族不親民不興於行則親未盡而視若路人者有矣殊不知自一人觀之舉其子孫其慇懃顧育之義烏可不惕然深念哉蓋太史公序列古昔仁人君子澤厚而族盛者立爲世家然至五季之衰多不能舉其世以曹氏而或祖虞舜或祖振鐸朱氏而或祖顓頊或祖丹朱此何從爲別哉逮其益衰尤舛紊不明崔盧鄭李之世尚患混淆無他譜失之弊也其上世既有仁人君子積德蓄厚以垂燾于後人其後世又必有承體襲慶惟世德之不易不替益修猶農夫之既耕而又耘起而爲大族傳而爲世家責報收功於所不知何人此又譜牒之不可以不作也惟鄭氏始發於東萊在勝國初已名爲大家到今七百餘年名卿巨人之相望於史籍盛德烈聞遺贏不匱殆其仁人之積德以垂燾後世承體而益修而太史公序列爲世家惟鄭氏可以當之鄭氏舊無譜宣廟中相國林塘公創爲五代以下世譜旋毀于兵後七十年鄭公良弼爲尹慶州過辭今相國鄭公慶州公即忠貞公曾孫而今相國於林塘公亦曾孫乃以譜牒事委慶州公經紀諸房之分散者支宗之別異者無不旁搜而普咨哀集之纂錄之釐爲上下卷出系宗派瞭然視掌仍鉅梓以廣其傳不踰月工告斷手夫以數十代之久千百人之衆咸本於一人而推原始初溯流而知源一體所分戚戚有骨肉咸和之懿無間親疏使後之繼今者踵是爲續譜世愈遠而愈不忘焉則慶州公敦本修睦之意可謂勤矣抑不佞有所聞矣鄭氏之上世有諱文道老退家居每聞邑宰開衙吹角輒下庭拜伏蓋其恭如是

及其喪^{하야}行葬^{한새}到華池山^{하니}有雪消虎踞之異^라就而葬焉^{하이라}不佞^이屢東萊郡^에猶指其墓^와及居基^{하야}以爲
種德之報^라云^{터라}譜既成^에慶州公^이遣其胤進士華齊^{하야}要不佞爲文^{하야}以序^{하니}蓋不佞之先^이爲許氏之自出
而許氏^{하고}又鄭氏之外裔^이則不佞之以一言^{으로}相斯役^이亦非僭越也^{노라하}

乙未仲秋^에

嘉善大夫前吏曹參判 李敏求^는謹序^{라하노}

乙未大譜序 번역문

사회의 風敎가 허물어지면서 宗族間의 規範도 무너져서 九族이 서로 겨레불이답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사람다운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여 親族이면서도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行人보듯이 하여 親族이 무엇인줄도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 있으니 이래도 되
는지 모르겠다. 祖上 한 분이 여러 子孫들을 은근하게 보살피던 뜻을 헤아린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라. 깊이 마음속에 새길찌
로다.

대저 역사상의 기록에 옛 仁人君子는 德이 두터워서 자손이 번창하여 代代로 빛나는 집안이 된다. 그러나 五季가 쇠하면서 그
世代를 밝히지 못하는 이가 많아졌으니 曹氏가 舜임금의 후손이라기도 하고 振鐸의 후손이라기도 하며 또 朱氏는 貞肅(顓頊)이
始祖라기도 하고 丹朱가 시조라기도 하니 진실로 어느 것을 좇아 분별해야 되랴. 그리고 後世로 내려오면서는 더욱 험클어지고
어수선했어서 崔氏, 盧氏, 鄭氏, 李氏도 조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뒤엎힘을 근심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족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 先代에 仁人君子가 계시어 德을 두터이 쌓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면 그 後孫이 반드시 그것(積德하는 일)을 본받아서 世
德이 이어져 경사스러움이 겹쳐질 것이고 변함없이 더욱 德을 닦는다면 농부가 알을히 받을 잘고 또 같아서 沃土를 만드느 것과
같아서 大族이 되고 世家가 될 것이지만 보첩이 없으면 어느 분 때문에 그리된 줄도 모를 것이니 이 또한 보첩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다.

여기 鄭氏가 東萊에서 發源하여 고려초기에 大家로 이름난 이래 지금까지 七百餘年이 지나도록 名公巨人이 끊임없이 國史에 기
록되었음은 그 집안에 盛德과 烈聞이 끼치고 남음이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는 일이니 仁人君子가 德을 쌓아 後世에 물려주

고 그것을 이어받은 後孫이 더욱 빛나게 했음이며 역사상의 기록에 世家를 꼽는다면 오직 東萊鄭氏가 마땅히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東萊鄭氏가 전에는 族譜가 없었더니 宣祖임금 때(一五八五 乙酉)에 左議政이던 林塘公 惟吉이 그 五代祖 判書公 以下の 世譜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壬辰倭亂 중에 훼손되었으며 그로부터 七十年만에 秋川 鄭公 良弼이 慶州府使가 되어 지금의 영의정 陽坡 鄭公 太和께 부임한다는 인사차 들렸었는데 慶州公은 곧 忠貞公 大年の 曾孫이요 지금의 영의정은 林塘公 惟吉의 曾孫이므로 이에 영의정에서 보첩의 일을 慶州公에게 부탁하여 그 일을 처리하게 하니 慶州公이 그것을 받아들여 各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派의 宗, 支孫들을 두루 찾아 널리 수집하여 上下 二卷으로 족보를 편찬하니 世系와 宗支의 구분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듯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冊板에 새겨서 널리 전파하려고 하여 수개월만에 冊板에 새기는 일을 完成하니 무릇 數十代의 오랜 세월과 그 子孫된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같은 조상에게서 由來하였으니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을 알 수 있고 같은 근원에서 갈라졌음도 문득 깨닫게 되었으며 至親이 和睦하는 아름다움도 생겨서 촌수의 멀고 가까움(親疎)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같은 조상의 子孫이니 지금의 이 修譜하는 뜻을 이어받아 후세에 보첩을 계속해서 이루어낸다면 조상으로부터의 代數가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그 근본은 더욱이 잊지 아니할 터이니 慶州公이 根本을 돈독히 하고자 보첩 만듦 일을 애썼다고 말씀드리겠다.

일찌기 나로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鄭氏의 上世에 文道로 이름쓰는 어른이 鄉吏이다가 연만하여 물러나 집에 계실적에도 姜官衙의 門을 열고 나팔부는 소리를 들으면 문득 뜰에 내려가 옆드려 절했다고 하니 그 공손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돌아가서 어화지산에 무덤을 모실 적에 한겨울인데도 이상하게 법이 쭉그리고 앉아서 눈이 녹은 자리가 있으므로 거기에 장사지냈다고 하며 내가 東萊에 가니 그 地方民들이 지금껏 그 무덤과 그 살던 집터를 가리키면서 자손이 번창한 것이 모두 德을 심은 보답이라고 하더라.

이제 보첩을 완성한 慶州公이 그 아드님으로 進士인 華齊를 보내어 나에게 序文을 지으라고 한 것은 대저 나의 先代 外家が 許氏이며 許氏는 또 鄭氏의 外孫인 때문이니 내가 이 보첩에 서문을 쓴들 분수에 넘친다고 나무라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여긴다.

一六五五(孝宗六 乙未)年八月에

嘉善大夫 吏曹叅判을 지낸 李敏求는 삼가 序文을 짓는다.

四、丙申大同譜序

古者^에有都宗家宗之職^과及大宗小宗之文^{하고}禮有昭穆^함史有年表^{하니}此^一譜法之權輿歟^이有宋之後^에儒教^가文明^{하니}則中朝世族^이多著修譜者^함而我朝士大夫^가尤皆以是^로爲重^함幾乎家置而人藏矣^라惟我東萊鄭氏^는自僕射公以來^로至今八百年間^에蟬赫蕃庶^함卿月台星^이世世輝煌^{하고}蔚然爲喬木之家^{하니}則歷選世之大家名族^에指無先屈焉^{이라}在昔林塘相公^함創爲譜牒^되而今^에無舊本之留傳者^{하고}獨有序文可考^니厥後^에秋川公良弼^이續而成之^함刊行二卷^{하니}其於厚親敦宗之義^가可謂大有益矣^라然^{이나}譜修之後^에恰又甲子一周矣^라天地流行之氣^와生化之理^가已經邵子^의所謂消長盛衰之限^이은 況乎人事之代日謝而世日蕃者哉^아然則族譜之踵舊修新^이有似乎史家^의纂述者^라代不乏秉筆之人然後^{에야}方可無一世一事之漏闕耳^라必東^이自少^로書史之暇^에偶嘗留意譜學^함慨然於吾門譜事之未修^니라 一日^에告諸宗長東平都尉^{하니}則亦樂聞而勸之^라乃與太僕曷先^과修撰續先^과佐郎來周諸公^{으로}修書于京鄉諸族^함而畢以系牒錄來^{하고}東平公^이又有紙筆之繼^함則凡七易藁^함而譜始成焉^{하니}合二十七篇^{이라}概其旁據證正^은則博取諸家(本百餘本^과及趙安陰從耘^의源流譜^를而考焉^{하고}其凡例筆義^는則倣遵尤春二先生之恩津譜^와玄石先生之潘南)譜^함而有所折衷取捨焉^{이라}雖與舊譜^로少有詳畧之殊^와規模之別^{이나}將不免僭妄之懼^{하고}而論以古人所謂情文義禮四者之譜法^{하면}可謂九分畫厨^이不全失真者也^라始則藏諸巾笥^함以未卽頒布^로爲嫌^니라 歲乙未^에受國厚恩^{하여}叨尹東京^함既以刊譜之意^로奉議於東平公而適值歲歉無貲^{하고}且汨民社之政^{하여}未暇也^니라 越明年^에始付剞劂氏^{하여}而廣其傳焉^{하니}東平公^의終始眷眷之意^와必東^의累載效勞之心^을今始有成矣^라蓋舊譜之作

이在於秋川公^의作宰茲邑之日^{하여}而陽坡相公^이勉而成之^{하고}今東平公^이以陽坡相公之勉人者^로勉不佞^{하니}可見克紹遺志^오而若必東者^가又幸托於秋川公之後塵^{하여}得履其舊邦^{하고}而續其舊譜^{하니}則歲甲之回^가與之適符^라無亦理自洄沼^에事有不期同而同者歟^아其亦奇矣^오仍竊念族譜之有關於人道之大矣^{라와}嘗觀西銘書^{하니}卽所謂理一分殊者^는以天地^로爲父母^{하고}萬民^{으로}爲同胞^{라하}則仁愛之理^가達于其間^{하고}而無復有四體痿痺^{하여}不識痛癢之患^{이라}故^로先賢^이至有作圖^{하여}以看^{하니}而謂之人理^가不出此中^이은 況乎以一人之身^{으로}而終分爲億千萬人^이如木之有根^{하여}而衆枝各異^{하여}如水之有源^{하여}而群派相分^{하니}其可以軀殼之不同^과而貌之有別^로而不思所以親愛無窮^{하고}反又視之若路人哉^아一開卷^에而瞭然乎遠近親疏^{하여}而可知其初^가同出於父母兄弟之身^{하여}而分焉^{하니}則凡在吾譜中者^는不啻若西銘所謂同胞二字之但泛然廣博而已^여覽斯譜者^는必以晦翁^의論西銘之義^로爲心^{하여}而無得諉之曰愛博而情不專^{이라}則可也^라茲^에不避僭倣^{하고}而縷縷道之云爾^다

崇禎後再丙申仲夏^에

後孫 通政大夫 守慶州府尹 鄭必東^은 謹書^{하노}

丙申大譜序 번역문

옛적에는 郡宗 家宗의 職과 大宗 小宗의 文이 있었고 禮記에는 사당에 신주 모시는 절차(昭穆)가 있고 史記에는 年代表가 있었으니 이것이 족보를 편찬하는 방법의 줄거리와 바탕이 되었다.宋나라 이후로 儒敎文化가 發達하면서 中國의 世族들이 많이 족보를 편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士大夫들이 이를 더욱 重히 여기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족보를 所藏했었다.

우리 東萊鄭氏는 僕射公 이래로 지금까지 八百年間을 자손이 번창하고 기라성같은 公卿大夫가 代代로 이어져서 輝煌찬란하여 을연하게 여러 代를 계속하여 중요한 벼슬자리에 있어서 나라와 운명을 한가지로 하는 집안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大家와 名族을 뵈을진대 가장 먼저 손꼽힐 것이다. 옛날에 林塘相公께서 우리 譜牒을 처음으로 편찬하였으나 지금은 옛책이 남아 傳함이 없고

다만 序文만 남아서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그 뒤에 秋川公 良弼께서 이어서 二卷譜를 간행하여 그 厚親하고 敦宗하는 뜻(義)에 크게 보탬이 되게 했다. 그러나 秋川公이 족보를 편찬한 뒤에도 六十年이 지났다.

天地의 流行하는 기운과 生成化育하는 이치의 經過를 邵康節은 「사라지고 자라나고 우거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한도가 있다(消長과 盛衰의 限)고 말하지 아니했던가 하물며 人事가 날로 바뀌고 世代가 날로 변함함이지요 그렇다면 옛 족보를 이어서 새롭게 수정하는 것은 史家가 역사를 편찬함과 같아서 대대로 人事를 바르게 기록하는 붓을 잡는 사람(秉筆之人)이 끊어지지 아니한 연 후에라야 바야흐로 가히 一世一事라도 빠뜨림이 없을 것이라고 할찌라 必東이 젊어서부터 공부하는 여가에 우연히 譜學에 유의하여 우리 門中の 譜牒을 편수하지 못한 일을 慨然히 여긴 나머지 하루는 이 일을 宗長인 東平尉公께 여쭙았더니 公이 즐거이 들으시고 그 일을 권장하셨다. 이에 太僕인 曷先과 修撰인 續先과 佐郎인 來周등 여러분으로 더불어 京鄕의 여러 일가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렸더니 모두 系牒을 기록하여 가지고 왔으며 東平尉께서는 또 종이와 붓을 資給하시고 무릇 일곱번이나 草稿를 고치고 다듬어 마침내 족보를 이루니 모두 二十七篇이다. 그리고 그 傍證을 校正함에 있어서 널리 여러 집안의 족보 百餘本과 趙從耘이 쓴 源流譜를 취하여 參考하고 그 凡例와 記述하는 방법은 尤菴과 同春 두先生的 恩津宋氏族譜와 玄石先生의 潘南朴氏族譜등을 본떠서 折衷하고 取捨하였다.

비록 옛 족보와는 자세하고 간략함의 다름과 규모의 분별은 약간 있으나 분수에 넘치는 주계념은 잘못을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고 옛사람들이 情文義禮의 네가지 譜法을 말하였으니 가히 九分の 畫圖가 온전하지 못하여 참을 잃었다 이르리로나 처음에 책고리에 감추어 두고 즉시 반포하지 못함을 혐의하였더니 一七一五(숙종四十一 乙未)년에 나라의 은혜를 입어 慶州府尹으로 命을 받고 족보를 刊行할 뜻으로 東平尉께 議論드렸는데 때마침 흉년을 만나 재물이 없는데다가 또 百姓 다스리는데 골몰하여 겨를이 없었다. 이듬해에야 비로소 木板에 새겨 널리 퍼게 되었으니 東平尉께서 始終 眷眷히 여겨 주었으므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람이 이제사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대저 舊譜를 刊行하였던 것이 秋川公께서 이 고을 慶州府尹으로 赴任하던 날에 陽坡相公께서 勸勉하여 그것이 完成되었고 지금은 東平尉께서 陽坡相公이 전에 권면한 뜻으로 나에게 권면하여 능히 遺志를 잇게 함을 가히 보게 되었으니 나 必東이 또 다행히 秋川公의 後塵으로 역시 慶州府尹이 되어 그 어른이 이룩한 舊譜를 續刊하여 구보가 이룩된

六十年 後에 일을 마치게 되니 두 가지가 더불어 符合이 되어 天理가 스스로 돌고돌아 만남과 人事가 같이할 것을 기약하지 아니 하였어도 한가지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또한 기이할 뿐더러 깊이 생각컨데 족보가 人道에 관련이 있음이 크도다.

일찍 宋나라 張載가 지은 西銘記를 보니 「理致는 하나인데 나누이어 다른 것 즉 理一이 分殊라」이른 것은 天地로써 父母를 삼고 萬民으로 同胞를 삼는다 하였으니 어질고 사랑하는 仁愛의 理致가 그 사이에 통달하여 다시는 四體가 절룩거리고 저리게 되는 증세가 없어 치료하는 근심이 없는 것과 같은지라 그러므로 先賢들께서 그림을 그려 (作圖) 보이였으니 人理가 이 가운데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고 일렀거든 하물며 한 사람의 몸(一人之身)으로 마침내 나누이어 億千萬人이 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있어 거기에서 나온 못가지가 각각 다름과 같고 물이 근원이 있어 여러 갈래로서 잘라짐과 같으니 그 가히 몸의 껍질이 같지 아니함과 얼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親愛의 무궁함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같이 보아도 될 것인가.

책을 한번 펴보면 遠近과 親疎가 분명하여 가히 그 始初에 함께 父母에게서 태어나서 兄弟의 몸으로 나누이어졌음을 알 것이니 무엇보다 족보 가운데 이름있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西銘에 이른 바 처럼 同胞라는 두 글자를 다만 범연히 넓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족보를 보는 이들은 반드시 朱子의 論한 바 西銘之義로써 마음을 쓰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를 親愛함을 넓히고 情이 한가지에만 오로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 이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거듭 거듭 이르노라.

一七一六(肅宗四十二 丙申)年 五月에

後孫으로서 通政大夫로 지금 慶州府尹인 鄭必東이 삼가 지었다.

라、己未大同譜跋

宗與支^가 有輕重矣^{로되} 而其父之愛之也^는 雖十子之衆^도 而均焉^{하고} 子而孫^이 有遠近矣^{로되} 而其祖之愛之也^는 雖曾玄之下^도 而均焉^{하니} 以是推之^{컨대} 今吾族幾千萬^이 皆吾祖之所均愛也^라 人^이 苟不愛其祖先^이 則己^와 苟

愛其祖先^{이라} 凡其祖先之所愛^를 鳥可不相愛哉^아 此^가 吾姓所以爲大同譜之義也^라 是譜也^는 敕于先祖林塘公^{하고} 後有族祖府尹公^의 所編^이 爲最詳^{하고} 其後^에 屢議續之^{호대} 而未遑者^가 二百年餘矣^{리다} 去丙辰冬^에 諸族會議于弊廬^{한새} 衆無貳辭^{어는} 卽席^{에서} 出紙^{하야} 自各派^로 釀錢^{하고} 注之選任事者^{하고} 倣其役^에 因事巨力紕^{하여} 憂憂乎難就^라 閱三寒暑^에 而功^이 竣^{하니} 譜既成^에 諸族^이 命不佞^하 跋以一言^어 余^가 無以辭^나 然^{이나} 叙修譜之意^는 前人之文^이 備矣^라 余^가 何敢贅焉^{오만} 重以前所言者^로 加勉于諸族^{나하노} 或操戈而入同室^{코나} 閱牆^{하여} 而來外侮^{이면} 非吾祖之孫也^{라나}

己未秋^에林塘公^의 十一代孫 萬朝^는 跋^{라하노}

己未大譜跋 번역문

만이와 지차 곧 宗과 支의 輕重은 있지만 그 父母의 사랑은 아들이 많아서 비록 열사람이라 해도 한결같이 고른 것이며 아들과 손자가 遠近在 있으나 그 할아버지의 사랑함은 비록 曾孫 玄孫까지 내려가더라도 달라짐이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계 우리 宗族이 몇千萬人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우리 祖上께서 사랑하심은 한결같이 고른 것이다. 사람이 있어 진실로 조상을 공경하지 아니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조상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무릇 이렇게 한다면 조상과 자손사이에서 어찌 서로 사랑하고 공경함이 없을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 姓氏가 大同譜를 간행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우리 족보는 진작에 先祖 林塘公께서 처음으로 刊行하였으며 그 뒤에 族祖 府尹公께서 편수한 족보가 있었으니 가장 상세하고 그 다음으로 여러번 續刊할 것을 의논만 하다가 부질없이 二百餘年이 지났다. 지난 一九一六(丙辰)年 겨울에 일가 여러 분들이 우리집에 모여 족보를 편수하고자 의논함에 모두가 찬성하고 달리 생각함이 없는지라 그 자리에서 종이를 내어 놓고 各派에 單金을 거두고 일을 맡을 책임을 뉘었더니 일이 크고 힘에 벅차서 추진이 잘 안되어 三年을 지나서야 겨우 일을 마쳤다.

족보가 完成되자 일가 여러 분들이 나에게 跋文을 쓰라 하니 내 사양만 할 수는 없으나 족보를 편수하는 뜻은 옛 어른들의 글

에 모두 갖추어 말씀했으니 내 어찌 군말을 덧붙이리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바로 거듭 우리 일가 여러분께 勸免하노니 同族間
의是非(操戈)가 한 집안에서 일어나고 兄弟끼리 다투어(閹牆) 남으로부터 羞侮를 받는다면 이는 우리 祖上의 후손이 아니니라.

一九一九(己未)年 가을에

林塘公의 十一代孫인 萬朝는 삼가 跋文을 짓는다.

마、甲戌一統譜序

吾始祖郡長公_이爲鄉官_하聞角拜庭_{고하}子與諸孫_이俱以文顯_하自是_로恭謹文學_이遂成家風_하千餘年之久
而不替_하此_는諸姓之所莫及也_오吾族兄_인晴石公_은七十年_을劬學篤行_하爲士友之楷模_하蓋公_이以翼惠
公長子昌原公之後_로高祖迺軒公_이久居臺閣_{호대}忠讜清儉_하官_이厘至亞卿_하不得盡展於國_{호대}而又復垂訓
于家_{하고}公之學_은亦得諸箕裘_하而又不得施於時_{호대}又復遺其諸子諸孫_하世世人人而不墜先業者_는亦吾諸
族之所莫及也_라公_이於尊祖敦宗_에尤致意焉_하嘗蒐輯各派一統譜_하吾鄭_의得姓_이世遠_{하고}支裔_가日繁_하
窮陬荒澗_에無所不居_{하고}農賈樵牧_에亦多潛跡_하公_이乃旁探廣搜_하悉得以載之而且其紊者_를櫛之_{하고}譌者
_를整之_하近世人家_의爲大同譜者_가比比焉_에而未有精且詳_이若是也_라公_의歿_이已二十有餘年_에各派_가亦有
子有孫_하公_의家孫雨興_이續而補之_하又將印以布之_하此_는吾所謂吾宗之世守先業者_가惟迺軒公晴石公
家_를爲莫及也_라近日_에世故擾攘_하宗族內_에亦多事_{호대}而惟雨興_이篤學明_하凡宗事_를無不就以正焉_{하고}
而今_에茲一統譜之印行_이尤有功於吾姓_{이라}方俶役_에以是弁之卷首_{라하노}

甲戌冬_에

鄭萬朝_는序_{하노}

一統譜序 변역문

우리始祖郡長公께서 鄉吏였다가 연만하여 물러나 집에 계시면서도 東萊官衙의 집무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리면 문득 마당에 내려가 절을 하였고 아들과 손자 모두가 현달했으니 이로부터 恭과 謹과 文과 學으로써 家風을 이루어 千餘年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빛나니 이것은 다른 氏族이 추종할 수 없는 바이다.

族兄 晴石公 圭威은 七十平生을 통하여 學行을 돈독히 하고 士友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翼惠公의 만아드님 昌原公의 후손이다. 高祖인 迈軒公 彦儒는 오랜동안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근무하면서 충성스럽고 바르며 청렴하고 검소했는데 벼슬이 겨우 叅判에 이르러 그 포부를 벼슬길에서 다 펼칠 수는 없었으나 그 정성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집안의 교훈이 되었으니 族兄의 學問은 또한 先代의 끼친 法度を 이어받았으며 世上에 널리 베풀지는 못했으나 그 遺風이 다시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져 내려서 代代로 子孫마다 조상의 이력을 잘 지킨 일은 또한 우리 宗族 중에서 으뜸이다. 族兄이 조상을 받들고 宗族이 화목하는 길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일찌기 各派의 單子를 모아 一統譜를 편수했으니 吾鄭의 得姓 이래로 世代가 오래되고 子孫이 날로 번창하여 살지 아니하는 지역이 없고 직업도 각가지여서 자취가 희미한 것이 또한 흔한데 族兄이 이것을 살살이 빈틈없이 찾아내어 편수하면서 형클어진 곳은 빗칠 하듯이 고르게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니 요즈음 여러 姓氏들이 大同譜를 편수하는 일이 드물지 아니하지만 아직 정밀하고 상세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族兄이 作故한 지 二十餘年이 지났고 各派에도 子孫이 없는 바 아니지만 편수할 뜻을 내지 못했고 오직 族兄의 손자 雨興이 계속해서 一統譜를 보충하여 出版 配布하려 하니 이것이 내가 이르는 바 「우리 宗中에서 代代로 조상의 이력을 이어받은(先業) 집안은 오직 迈軒公 晴石公으로 이어지는 이 집안을 따르지 못하리라」고 확신한다. 요즈음 세상도 시끄럽고 宗族內에도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雨興이 애써서 모든 宗事를 바로잡고 또 一統譜를 刊行하니 더욱 우리 일가에게 功이 크도다. 바야흐로 일이 시작되었음에 책머리에 이렇게 쓰노라.

바、甲戌一統譜跋

一統譜^는 何爲而作也^오 盖慮其同祖一祖而派分世遠^함 遂至於忘^{하고} 忘而至於路人也^라 肆昔^에 族先輩晴石公諱圭成^이 爲是慨然^하 編成統譜一卷^하 經議於族叔錦樵公諱學默^하 極加刪釐^하 要以無漏於收聚^{하고} 不煩於記載^하 將繡之梓而廣于諸宗^가 因循之頃^에 人事遽大謬^함 遂成千古未卒之案^이 庚申春^에 錦樵公胄孫世鎮^과 晴石公胄孫雨興^이 思述先志^하 增修下系^하 凡爲卷者^가 九^로 而歷年者^가 十餘矣^라 芝秀^가 仍念茲譜之成^이 實吾宗^의 敦睦之權輿也^늘 而復遷延時日^하 不圖剗剗則前鑑^이 自在^라 後期杳茫矣^{일세} 遂與再從姪夏益^{으로} 合謀印出^하 非敢自謂以能事之畢^{이라} 庶或有望於吾宗之不至路人也^{로다} 是役也^에 前後幹其事而費盡心力者^는 族叔雲誼也^라 是不可不書^라

青狗赤牛下幹^에

執義公十七代孫 芝秀^는 謹跋^라

一統譜跋 번역문

一統譜는 왜 편수하느냐?

할아버님 한 어른에게서 번어났으면서도 派가 갈리고 世代가 멀어져서 드디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무심코 길거리에서 스쳐 가는行人들처럼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편수했다. 지난날 晴石公 圭成께서 이것을 개연히 여겨 一統譜 한 권을 편집해 두고 錦樵公 學默과 수의를 거쳐 簡明하게 修正하고 빠짐없이 모으고 기록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곧 출판하려다가 머뭇거리는 사이 人事가 크게 그릇되어 두 분이 모두 돌아가千古에 다하지 못할 유감을 끼치더니 一九二〇(庚申)年 봄에 錦樵公의 손자 世鎮과 晴石公의 만손자 雨興이 그들 祖父의 뜻을 이어받아서 下系를 다시 增補하니 十餘年 세월이 걸려 무릇 九卷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컨대 이 족보가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우리 宗中이 敦睦하는 진실된 方法이거늘 곧 출판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시일을

늦추다가는 지난 날의 보기처럼 刊行을 기약하기가 막연할 것이므로 드디어 再從姪 夏益으로 더불어 함께 출판하기를 꾀하여 이제 거의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우리 宗族이 덤덤히 스쳐 지나가는 行人을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 고 이 일을 이루어냄에 物心兩面으로 크게 이바지한 분은 雲經族叔이므로 여기 밝혀 감사한다.

一九三四(甲戌)年 五月下旬에

執義公의 十七代孫인 芝秀는 삼가 跋文을 짓는다.

執義公派譜 序跋

가、乙亥直提學公派譜 序

夫成事_는 在時_{하고} 做事_는 在人_{이니} 何謂在時_오 詢謀僉同即其時也_요 何謂在人_고 勇斷自任即其人也_라 雖詢謀僉同_도 而苟無勇斷自任_{이면} 則每如途舍_{하고} 雖勇斷自任_도 而苟非詢謀僉同_{이면} 則必致逕庭_{이니} 事之難_아 就良有以焉_{이라} 嗟呼_라 吾鄭譜牒之不修_가 居然百六十年久_라 近來_에 諸宗_이 析居_{하고} 又罕顯達_{하여} 派分之遠近_과 代系之上下_를 將不免杞宋之歎_{이라} 以是_로 爲經營者_이 殆十數稔而未就_{하니} 若是乎時與人之難會也_라 今_에 承宣_인 學默_이 以 翼惠公_의 嗣孫_{으로} 方居 蓬安君憂_{하며} 迨此職事之無拘思舉宗事之未遑_을 慨然_{하여} 發論_{하고} 設譜_{하고} 所于 翼惠公山下省達里_{하니} 蓋取古人敦宗之術也_며 亦讀禮之意也_라 諸宗派_가 詢謀而僉同一_{하고} 宗孫_이 勇斷而自任_{하니} 此其時也_오 又其人也_라 豈不偉哉_아 然而東萊之鄭_이 于茲近千年_에 稱鉅族_{이니} 今遽衰成大譜_면 則事系浩大_{하고} 又慮財力不逮_라 乃與直提學公以下諸宗_{으로} 商議爲派譜_{하니} 惟其做事也_가 簡而明_{이라} 故_로 所以成事也敏而該_라 文翼公派_가 當與共之_나 自其派中先已修 林塘相公以下派譜云_{이라} 譜既竣_에 屬不肖_{하여} 以序文_{하니} 不求官爵_{이요} 不取文華_라 亦不外索特爲忝在尊行年紀之稍大抑亦敦尚之意歟_{인지} 辭不獲_{이라} 謹稽_{컨대} 吾鄭

之譜가 敍于

皇明萬曆十三年乙酉하고迄今凡四纂輯에皆於乙年한豈偶然也哉아畧叙其重修之事나하노有是時而有是人也로다

上之即祚十二年乙亥元月上하幹

直提學公의十三世不肖孫肅東이謹書한다

乙亥直提學公派譜序 번역문

대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時期에 달렸고 일을 경영하는 것은 人物에 달렸다고 하니 무엇을 일러 時期에 달렸다고 하는가 모두들 뜻을 같이 할 때가 그것ियो, 무슨일을 하는 것을 人物에 달렸다고 하는가 용기있게 결단하여 스스로 그 일을 맡을만한 사람을 일러 그 人物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모두들 뜻을 한가지로 하더라도 용기있게 결단하여 스스로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면 허둥되다가 그칠 것이오, 용기있게 결단하여 스스로 그 일을 맡을만한 사람이 있어도 진실로 뜻을 한가지로 모을 수 없다면 일이 엉뚱하게 되돌릴 것이니 참으로 일의 성취가 이토록 어렵다. 우리 東萊鄭氏가 족보를 편수하지 못한 적이 어느덧 百六十年이 되었으며 요즘은 宗族들이 散居하고 또 벼슬과 명망이 세상에 드러난 이도 드물며 또 派分된 遠近과 代系의 上下를 잘 모를까 걱정스러워서 十數年을 경영해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시기와 인물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承宣인 學黥이 翼惠公의 胃孫으로서 마침 아버지 蓬安君 翰東의 喪中에 벼슬장에서 물러났다가 족보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개연히 여기어 족보 편수하기를 發論하고 譜所를 翼惠公 묘소 결의 速達里에 설치하니 옛어른들 敦宗하던 方法이며 또 執喪中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派가 뜻을 한가지로 하고 宗孫이 용기있게 결단을 내려 스스로 일을 맡았으니 그것은 時期를 만났고 또한 그 人物을 얻었음이니 이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鄭氏가 東萊로 鄉貫한지 近千年이요 지금에 巨族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大同譜를 편수하려면 系派가 넓고 또 財力이 못미칠듯도 하여 直提學公 以下 子孫만이 서로 의논하여 派譜를 편수하기로 하였으니 일을 경영함에 간단명료하고 일을 이루어냄에 능력이 갖추어졌다. 다만 文翼公派가 당연히 族譜를 함께 해야 될 터이나 다만 林塘相公의 후손들은 미리 派譜를 편수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族譜가 이루어짐에 나에게 序文을 쓰라고 하니 관작높은 이에서 求함도 아니오 文章이 넉넉한 것을 取함도 아니오 또한

특별한 것을 찾음도 아니며 다만 宗族間에 敦睦하고자 함이니 곧이 사양할 수 없다. 吾鄭의 족보가 乙酉年인 一五八五年에 처음으로 편수된 이래 이제까지 네 차례 편수되었으니 모두 乙자가 든 해에 이루어졌으니 이 어찌 우연히 그리 되었으랴 이상한 일이다. 족보를 거듭 편수하면서 그 시기에 그 인물이 있어서 족보가 이루어진 내력의 대강을 서술하노라.

高宗十二年 乙亥인 一八七五年 正月 初旬에

直提學公의 十三世孫인 肅東이 삼가 서문을 썼다.

나、丁卯執義公派譜 序 (其一)

厥初^에 生民以來^로 凡有吾身^이 遐福亨侑^는 實系於 祖先之累德悠暨^{이니} 而不知所自出^{이면} 則是^는 忘其本也^라
 豈人道哉^아 程子曰子孫^의 源流之長^이 由於祖宗受氣之盛^{이니라} 信此言乎^{이치} 我鄭^이 肇自新羅六部賜姓^{하고} 系籍
 哀萊^{하여} 顯自 文安公^{하시} 迄今爲三十餘代^에 偉相巨哲^이 繼世踵出^{하여} 耀赫國史^{하고} 贊揚士論^{이온} 況我族類^는 算以
 百千^{이나} 宗支之別^과 遠近之分^이 明析其詳^{하여} 粲然不紊^{하니} 是^는 慕 祖而敬之^{하고} 率親而愛之^{하며} 自正至傍^과 自本
 達支^에 講世敦睦^{하여} 以明尊尊親親之義也^{로다} 故^로 所以吾門爲此譜之大旨^과 然蓋此修譜^는 始於乙酉^{하고} 至于
 乙亥^히 四爲纂輯^{하고} 其後未遑^{이니라} 洽近一甲^{이라} 世降俗移^{하고} 門寒族清^에 議而未決^{하고} 續而不能^{이라} 花樹每合^에 爲此
 慨歎^{니라} 去壬戌冬^에 京城^의 數三族人^이 偶會^{하여} 一議^에 詢謀僉同^{하여} 遂設譜所^나 然^{이나} 鳩財無階^{하고} 屢改星霜^에 名
 而未遂^{하니} 嗟夫^라 海波萬里^에 加浮蜃樓^{하고} 思在有無^에 但噓唏而相看矣^{리니} 幸於今春^의 扶風一會^에 花木^이 更
 新^{이라} 譜版^을 移揚於湖西大朴里^의 文安公齋閣^{하여} 纔經半載^에 功告訖^{이라} 譜既成^에 諸宗^이 命此不佞^{하여} 序以一
 言^{하니} 無敢堅辭^라 僅述槩要^{하니} 蘇子^의 所謂觀吾譜則孝悌之心^이 油然而生者^가 此也^라 諸種詳述俱悉於凡例
 하니 不必長遑^{이라} 祇表寸誠^{하여} 僅構數字^{하여} 以聞後學^과 僉宗^{하니} 勿爲贊引之趾以先美^를 猥且賴望焉^{라하노}

丁卯仲冬^에

執義公十五代孫^의 通訓大夫^로 前叅奉^인 箕鎭^은 謹書^{하노}

丁卯派譜序 번역문(其一)

천지가 처음 열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부터 무릇 내 몸이 있기까지에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은 진실로 선조께서 덕을 쌓았음에 힘입었으니 자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는 곧 그 근본을 잊음(忘其本)이다. 어찌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될까 보나 程子께서 이르되 「子孫의 흘러나온 본바탕이 장구한 것은 조상에께서 기운을 받음이 성한 때문이라」 했으니 참으로 이 말 씀이 미덥도다.

우리나라 鄭氏는 신라 六部가 賜姓된 때로부터 비롯되었고 東萊로 系籍하고는 僕射公께서 현달한 뒤으로 지금까지 三十餘代에 이르도록 훌륭한 宰相과 큰 學者가 代代로 이어나서 國史에 빛나고 세상의 찬양을 받으며 더욱 우리 宗族은 매우 번창하나 宗支와 親疎의 구분이 험글어짐 없이 두렷하니 이것은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며 소목을 밝혀 종족이 화목하므로써 공경할 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뉘엿뉘엿한 도리를 밝힘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문중에서 이 족보를 편수하는 뜻도 대체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 종족이 一五八五(乙酉)年에 처음으로 족보를 편수하고 一八七五(乙亥)年까지 무릇 네 차례를 편수했으나 그 뒤로는 미처 족보를 편수할 겨를이 없이 거의 五十年이 지나는 사이에 開化 이후 日帝의 強占 등으로 세상이 변하고 門戶는 가난해져서 아직 족보를 계속해서 편수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로 宗族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개단했었더니 一九二二(壬戌)年 겨울에 서울에서 宗人 두셋이 우연히 모이어 족보 편수를 수의하니 모두들 뜻을 한가지로 찬동해서 譜所를 설치했으나 경비를 염출한 길 이 없어 여러 해를 보소의 이름만 걸어 두고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대저 만경창과 위에 뜬 신기루를 바라보듯했었는데 今年(一九二七)丁卯 봄에 새로이 뜻을 모아 忠南 靑陽郡 定山面 大朴里 僕射公 齋室로 譜所를 옮겨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半年 남짓만에 족보의 편수가 완성되었다. 이에 이르러 여러 宗人이 나에게 서문을 쓰라고 하므로 굳이 사양만 할 수 없어 그 사이에 있었던 사정의 줄거리를 대충 적으니 蘇東坡가 「우리 족보를 보면 孝悌하려는 마음이 구름 피어나듯 솟아날 것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것

인가보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가지 자세한 것은 모두 凡例에서 밝혔으므로 장황하게 사설을 늘어 놓지 아니하면서 다만 뒷날에 이 족보를 볼 여러 宗人들이 祖上이 끼치신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뜻으로 두어 마디 기록한다.

一九二七(丁卯)年 동짓달에

執義公의 十五代孫이며 通訓大夫로 參奉을 지낸 箕鎭이 삼가 서문을 지었다.

다、丁卯執義公派譜 序 (其二)

夫人道者^는 宜明倫理^{하고} 而倫理之明^은 務親九族^{이라} 然若不知系代^면 則族之遠近^과 行之上下^를 烏可辨得乎
 所以^로 有宋之世^에 歐陽文思公^이 作爲其譜^{하니} 中華士族^이 多效其志著以稱算^{하니} 而厥後^에 波及海外^{하여} 我
 東^의 巨族^도 無不修譜^{하니} 實明人倫之大義也^라 故^로 昔^에 我 林塘先祖^{께서} 勑爲是譜始^{하고} 自乙酉^로 迄于乙亥
 凡爲四纂輯^{하고} 後回周甲^{이니} 經紀未遑^{하여} 每臨此事^에 慨嘆無已矣^라 今以執義公后^로 爲派譜^{하니} 而顧我寒門
 繼舊同梓事知當然^{이니} 誠財俱缺^{하여} 有意未遂^{하니} 豈不憾愴乎^아 然而今於寅晃甫^가 告我竣功^{하고} 又要其序故^로
 辭而不堅^{이라} 強拭霧花衰眼^{하고} 噓凍把毫^{하여} 微述其志^라 然我爲 執義公^의 第三弟^인 翼惠公之后裔^니 則於
 我^에 爲宗家也^라 宗家之譜^에 序以一言^이 亦非僭越故^로 僅構數字^{하여} 以付編次^{하니} 此可謂敦睦之意歟^{인지}

開元後八丁卯之載陽月中旬^에

嘉善大夫前忠清南道觀察使兼水陸軍兵馬節度使原任奎章閣待教 從後孫^인 寅昇^은 謹叙^{한다}

丁卯派譜序 변역문(其二)

대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人倫을 밝히려 되고 人倫을 밝히면 九族이 화목한다. 그러나 만약 系代를 알지 못하면 촌수의 멸고 가까움과 行렬(行列)의 上下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그러므로 宋나라의 歐陽永叔이 族보를 편수한 이래로 중국의 士族들이 많이 歐陽氏의 族보를 본떠 族보를 편수하여 촌수와 行렬을 밝혔고 그런 위으로 海外에까지 波及되어 우리 나라의 巨族들도 모두 族보를 편수하여 사람으로서 人倫을 지키는 뜻이 분명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 宗族도 林塘 先祖께서 一五八五年에 族보를 처음으로 편수하고부터 一八七五(乙亥)년까지 무릇 네 차례나 族보가 편수되었지만 또 六十年이 다 가오는데 다시 族보를 편수할 겨를을 내지 못하여 개탄했었는데 요즈음 執義公의 후손들이 族보를 편수한다. 당연히 一八七五(乙亥)년처럼 族보를 直提學公의 후손이 망라하여 계속 편수해야 될 일이나 성의와 재정이 모두 모자라서 뜻을 두고도 이루지 못하니 어찌 쓸쓸한 느낌이 없으랴. 그러던 차에 寅晁君이 나에게 와서 族보의 편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序文을 쓰라고 하니 곧이 사양만 할 수도 없어서 흐린 눈과 언 붓으로 대강 그 뜻을 여기 적는다. 그리고 나는 집의공의 세째 아우 익혜공의 후손이니 나에게서 宗家이다. 宗家の 族보에 한 말씀 서문을 쓰는 것도 분수에 넘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두어 마디 글을 책머리에 붙이노니 이 이른바 宗族끼리 화목하는 도리도 될 것이다.

一九二七(丁卯)年十一月中旬에

嘉善大夫로 忠淸南道觀察使 兼 水陸軍兵馬節度使를 지내고 原任 奎章閣 待敎인 從後孫 寅昇이 삼가 서문을 짓는다.

라、丙申執義公派譜序

天倫叙而人道立者 未有勝於家譜 家譜는 譬如國史이니 史學이 不明이면 則國政이 無以致治 譜牒이 不完이면 則家法이 無所稽疑 是以 唐宋之時에 中華의 士大夫가 往往著其書 我東名門巨族도 亦世修而戶傳 이라 然賢明能舉者 子孫이 多顯達 愚昧弗能舉者 子孫이 多零替 此非天地丕泰之運가 亦足以行人家

丕泰之事_를推可知也_{로다} 輓近_에西波_가東流_{하여}輕薄浮佻輩_가排斥以誇張班閔_{하고}能談歐米列史_{서학면}而莫知其
 自身_의所由出_{하여}父祖_의字諱_와墳墓_를太半有失_{하고}宗族_의派系根源_도互相未據_{하여}斬齊功總之服_도無等無
 別_{하여}而三綱五常_이風前燈火_라雖曰物質文明_{이나}終何異於夷狄禽獸哉_아乙未夏_에扶餘_의鎮詰從_이跋涉行半百里
 訪余于定陽山舍_{하여}曰東萊吾鄭氏_가喬木爲鉅室_로道德文章_이儒林_의多師表_라然而自僕射公_{으로}迄今_에
 歷三十有餘代_{로되}六回纂輯_{하니}疎漏_가不可無_라向隅之歎_{이온}況丁卯牒_이洽滿一紀_요幹枝多奕葉_{이니}則添補修整_이
 古人譜法之真權輿_{이며}而竊觀時局_{하니}道喪倫滅_{하여}父子叔侄_이各利其利_{하여}兄弟姊妹_가相婚其婚_{하고}賤禮義_{하여}
 貴財色_{하니}有甚於犬戎之行_{이라}則吾屬將未免於左袵矣_{리니}當此時_{하여}使新進_{으로}察正體_{하고}通血脉_{하여}骨肉_이得咸
 和之懿_{이면}可乎_{하다}噫_라君之言_{이여}君之言_이是也_{로다}先祖_{께서}種德_{하신}遺蔭_이厚發于吾身_{하여}吾身_이冠日月_{하고}履
 水土_에安樂養子孫者_가千萬代_에望不食之報_로以不食之報_{하니}報弗食之報_가其在斯歟_아其在斯歟_아雖然
 而非衆力_{이면}難矣_라夫一源之水_가派分潺湲_{하면}則鱖鱖_이出沒_{하여}泥沙溷濁_{하고}派合洋洋_{하면}則魚龍變化_{하여}波
 濤澄清_{하니}澄清吾門_에孝友無溷濁者_{하고}使各派亦分_{이나}久必合_{하니}合而爲一也_라已遂發文于京鄉_{하고}開宗會于
 大田_{하여}從僉議_{하여}設譜所於我坊_{하고}收單_{하여}編三卷_{하고}名賢_의碑文若干章_을記入於首_{하여}付劄剡氏_{하여}授印者_{리니}
 越明年丙申冬_에功告訖_{하니}義禮情文_이粲爛極備_라上可以闡祖宗事業_{하고}下可以辨親戚昭穆_{하니}則元理人事
 得千百代無窮之休_요而眞一族寶鑑也_라古人_의所謂孝悌之心_이油然而生者_가此耶_아嗚呼_라晃_이自度
 以蔑學庸才_로猥叅幹事之列_{하여}始終有遊手刀筆_{하니}而自丁卯_로相斯役至今爲二回_라故_로詳其本末_{일세}略
 叙景概_{하여}以明述先裕後之義_{라하노}

檀紀四二八九年丙申 月 日

執義公十五代孫 不肖寅晃 謹序

丙申執義公派譜序 변역문

天倫을 바로잡고 人道를 펴냈으니 세움에는 족보보다 나은 게 없다. 족보는 비유컨대 國史와 같으니 國史에 史觀이 흐릿하면 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워지고 족보가 완실하지 못하면 그 집안의 법도가 헛들어진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唐宋 무렵에 士大夫들이 이따금 족보를 편수했고 우리나라의 名門巨族들도 또한 족보를 편수했지 마는 어질고 영리하여 도리에 밝으면 顯達한 자손들이 많고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으면 자손들이 시들해진다. 이것이 天地間의 성쇠하는 운세이니 또한 그 집안의 성쇠하는 운세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요즈음 사양 사조가 우리 동양으로 몰려오니 경조부박한 무리들이 우리 고유 전통은 배척하고 歐美 여러 나라의 역사는 능용하면서 자신의 근본이 되는 父祖의 이름이나 조상의 묘소는 거의 잃었고 宗族間의 派系도 잘 모르고 親疎의 구별도 없이 되어 三綱五倫이 거의 무너지려는 위급한 판국이다. 비록 물질문명이 발달한 탓이라고 말하더라도 마침내는 어찌 禽獸나 오랑캐와 무엇이 다르랴.

지난 一九五五(乙未)年 여름에 扶餘사는 鎭喆군이 定山의 우리 집까지 나를 찾아 먼 길을 와서 말하되 「우리 東萊鄭氏의 도덕과 문장을 흔히들 儒林이 본받고자 할만큼 이름높은 훌륭한 집안이지만 僕射公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三十餘代를 지나는 동안 족보를 六回 편수했을 뿐이니 엉성하고 꼼꼼하지 못하여 좋은 기회에 마주치지 못한 단식이 없을 수 없는데 항차 一九二七(丁卯)年에 족보를 편수한 이래 꼭 一世代가 지났으니 그 사이 종족이 많이 번창했을 것이며 옛어른들이 족보를 고쳐 정돈하던 방법에 따라야 될 것이다. 요즈음의 세상 형편을 가만히 살피니 道德라 倫氣가 무너져 父子 叔侄間이라도 서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兄弟 姊妹間이라도 서로 차별없이 멋대로 혼인하며 예의를 하찮게 여기고 재물만 귀중하게 여기어 오랑캐의 행실보다 지나치니 우리 무리들이 이러다가는 未開族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체통을 바르게 세워 주고 骨肉의 소중함을 일깨워 至親이 和睦하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그대의 말씀이 옳도다」先祖께서 德行을 쌓아 그 陰德을 끼쳐 주시어 나 자신에게서 두터운 발복이 나타나고 배가 하늘을 우러르며 땀을 힘차게 뉘고 편안하게 자손을 기르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조상의 陰德을 힘입어 자손이 잘 되는 되값음(不食之報)을 바라나니 그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비록 그러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는 응력이 아니고 혼자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느니라. 대저 한 근원의 물줄기라도 그것이 갈리어

저서 자자하게 가늘어지면 진흙 개펄속에 미꾸라지와 송사리가 혼튼물을 일으키고 설칠 것이요, 물줄기가 어울어져 한없이 넓어지면 물고기가 龍으로變化하며 물결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우리 집안은 효도하고 우애하여 어지럽히고 흐리게 하는 일이 없고 또한各派로 갈라졌으나 어울어져 큰 줄기를 이룬다. 이에 드디어 京卿의 宗族에게 通文을 보내어 大田에서 宗會를 열고 衆議에 따라 譜所를 나의 집에 차리고 單子를 거두어 족보를 편수하니 三卷이 되었다. 名賢의 碑文 약간 편을 채머리에 실어 인쇄해서 다음 해인 一九五六(丙申)年 겨울에 일을 마무리하니 義禮情文이 찬란하게 고루 갖추어졌다. 위으로는 祖宗의 하신 이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래로는 친척과 昭穆의 사이를 밝힐 수 있으니 곧 인사가 千百代로록 무궁할 아름다움을 얻어 진실로 온 겨레본이의 寶鑑이로다. 옛 蘇子의 이른바 孝悌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내 스스로 헤아리니 배움이 모자라고 변변치 못한 재주로도 분수에 넘치게 이 일을 주장하여 말아서 한결같이 單子를 정리했으니 一九二七(丁卯)年에 이어 이 일을 맡은 것이 두번이므로 그 일의 요긴함과 대수롭지 아니한 것에 삼세하니 일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서술하여 서述先裕後하는 뜻을 밝히노라.

一九五六(檀紀四二八九 丙申)年 月 日에

執義公 十五代孫인 不肖 寅晃은 삼가 짓는다.

마, 戊午執義公派金石世譜 序

國史는 史國蹟_하 歷代_의 記社稷存廢_하 列邦_의 論朝廷得失之書_이니 特治平者_의 龜鑑_이라 而若无龜鑑_이 則軍民施政_에 未合元法_하 動亂_이 勃發_에 國_이 必滅亡_하 家譜는 譜家乘_하 本姓_에 稽父祖_의 承統_하 同族_의 敦子孫和睦之策_이 實修齊者_의 象徵_이라 而若无象徵_이 則親戚叙倫_이 未詳昭穆_하 奸淫盛行_에 家_가 必蕩殘_이 由此로 觀之_{컨대} 勿論貴賤_하 皆明血脉_하 戶戶分置_하 世世相傳_이 乃教育_의 義方_이요 人道_의 不易正典_이라 然_{이나} 挽近_엔 異派橫流_하 輕薄浮佻輩_가 誤認_하 稱誇張門閥_{이라} 巧弄利舌_하 嘲斥族譜_하 徒衣食_하 貪財貨_하 托名學界_하 但習雜誌僂說者_가 活步都市_하 濫矜博識_하 從事于歌舞遊戲_하 口腹_에 充芻養佳味_하 耳目_에 極聲色娛樂_이 果是

耶^아 非耶^아 直非其是^오 而是其非也^{라니} 噫^라 彼亦爲萬物靈長^하 自狀效鳥獸之音^이 甚可嘆可惜^에 何^오 蓋無
 天道曆書^면 四時^에 由何以知春秋^하 喬木^을 能宜植宜培而枝葉繁昌^하 地圖^에 無羅針^하 五洋^에 由何以知南
 北^하 大水^을 能定方向而舟楫通行乎^아 今^에 余^의 年^이 迫耄^에 尤極傷心^하 廣搜羅麗古史及列傳^하 收上世
 文籍^하 倣司馬遷^의 自序篇^하 作源流^하 執義公^의 允舍四兄弟位以下五代^의 官爵道德功勲節行與狀銘詩賦
 略取謄抄^하 遵蘇明允^의 眉州牒^하 編成金石集^이 既有年^에 長兒^인 英謨^와 四從姪^인 庚謨^와 族孫^인 沂秀等
 通報京鄉^하 開宗會于大田^하 決議登梓^에 續修世譜^{라니} 而四兄弟位中^에 伯叔仲^의 后裔三派^는 同錄無踈漏
 惟季^인 副正公派^는 居在靈光^하 有故不叅^이 甚遺憾^{이니} 然^{이니} 各門中系^의 忠孝烈卓行偉蹟及行狀碑文^을 多
 少添錄^하 現代博學士與公務員職名^을 亦爲記載^하 燦爛大裘成章^{하니} 則吾門^의 足爲傳世寶鑑^{이오} 且述先裕後
 得無窮之休者^{이니} 豈非慶幸哉^아 嗟嗟新進^은 繼繼繩繩^하 續述祖業^에 无忝所生^을 至囑至囑^{다로}

戊午正月 日

忠憲公九代孫不肖寅晃 謹序

戊午執義公派金石集世譜序 번역문

대저 國史는 그 나라 역사의 자취를 적어서 歷代와 흥망의 사실을 나타내고 政治의 잘잘못을 밝힌 책이니 나라를 다스리고 天
 下를 平定하는데 본보기의 거울이 된다. 만약 그러한 본보기의 거울(龜鑑)이 없다면 政治와 法令이 民度와 民政에 합당하지 아니
 하여 반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族譜는 그 姓氏의 血統을 기록하여 昭穆을 나타내고 倫氣를 밝혀서 孝悌
 를 힘쓰고 화목을 두텁게 하는 목적이며 修身하고 齊家하는데 象徵하는 책이니 만일 그 象徵이 없으면 제통을 몰라서 倫氣가 막
 히어 骨肉間의 奸淫과 다름이 일어나 그 집안이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혈통을 밝히어 후
 손 교육의 바른 길로 삼아야 되며 족보를 집집마다 간직하여 대대로 이어 전해야 되는 것이 인륜 도덕의 큰 법도이지만 근래에

오랑캐 풍속의 물결에 휩쓸린 경박한 무리들은 족보가 문벌을 과장되게 자랑하던 케케묵은 책이라고 말을 교묘하게 꾸며대면서 배척하고 단지 口腹만 중히 여겨 먹고 입는 것만 생각하고 재물만 탐내며 또 학문을 한답시고 잡된 책이나 읽고 거리를 활보하면 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채 자랑삼고 다만 노래하고 춤추며 떠들석하고 입에 맞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함부로 聲色에 탐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릇된 일인가 어이없게도 옳은 것은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은 옳다고 하는 판국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저들 역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산 속의 새와 들판의 들짐승들처럼 지름구렁에 빠져 싸우는 꼴이 되니 우습고 가히 탄식할 바이로다. 대저 天度에 책력이 없으면 춘하추동 사시절을 이어 분별하여 절후를 맞추고 오곡백화를 재배하며 地圖에 나침반이 없다면 큰 바다 한가운데서 동서남북을 어찌 알아서 뱃머리가 방향을 잡아 항해할 수 있겠는가.

내 이제 나이 九十을 넘었으니 항상 이 일로 상심이 되어 家道를 밝히고자 신과 고려의 옛역사와 列傳에서 널리 찾아 우리 上世 文籍을 수록하고 중국의 經典과 演義를 대조하여 司馬遷의 自叙篇을 본떠서 源流記를 만들고 우리 執義公의 아드님 四兄弟 以下 後孫 五代까지의 벼슬과 도덕과 훈공과 節義와 行狀과 碑文과 詩와 賦등 文章을 약간 취하여 엮어서 신과 蘇東坡의 족보를 본떠서 金石集으로 만든 적이 몇해 되었더니 長子인 英謨와 四從侄인 庚謨와 族孫인 沂秀가 서로 의론하고 경향의 종족에게 기별하여 大田에서 宗會를 열고 간행할 결의를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世譜까지 이어 편수하였다. 四兄弟분 중에서 만집을 비롯 三派는 함께 편수하여 빠짐이 없으니 오직 季派인 副正公派는 靈光에 살면서 따로 派譜를 편수하였기로 불참한 일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各派의 中系 以下の 孝烈과 卓行과 偉蹟과 行狀과 碑文등도 약간 덧붙여서 기록하고 현대의 박사와 학사와 공직자의 직함을 모두 기재하여 소상하게 밝혀서 매우 훌륭한 족보가 되었으니 우리 宗中의 代를 이어 전장(傳掌)할 귀중한 보배가 되기에 녀석하리라. 이야말로 크게 경사스럽고 다행하지 아니한가 착실한 新進들은 계계승승하여 대대로 족보를 편수하고 집집마다 간수하기를 서로 권하여 영원토록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 부탁하노라.

東萊鄭氏執義公派譜 首編

執義公諱蘭孫派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見一卷
祖龜齡父賜

子蘭孫 란손

字伯春

一四二四年甲辰生

一四五〇年庚午

生員 一四五八

年戊寅集賢殿修

撰司憲府監察

執義燕山朝禮曹

叅議 承政院左

承旨皆不赴一五

〇〇年庚申卒享

壽七十七 追除

吏曹叅判 中宗

朝 贈議政府左

贊成弘藝文大提

學 墓慶北尚州

郡化東面以所里

履素院元通山子

坐 有墓 碣神

道碑 碑銘從子

文翼公光弼撰

歲享祀每年陰十

月十日

配光州盧氏

子光世 광세

字彥卿

一四五七年丁丑生

一四七四年甲午

生員 一四七九

年己亥別試甲科

壯元 藝文待教

弘文校理直提學

一四八九年己酉

忠清全羅御使

江原黃海平安監

司開城留守 成

均館大司成司諫

院大司諫司憲府

大司憲義禁府都

聽管六曹判書

議政府左贊成

一五一五年乙亥

四月二十六日卒

諡昭平墓廣州郡

廣州邑牆枝里陵

內亥坐 神道碑

銘容齋右議政李

衍撰

子忠樑 충량

字叔幹

號磨齋

一四八〇年庚子生

一五〇一年辛酉

俱中生員進士

一五〇六年丙寅

文科 藝文待教

疏伸一五〇八年

戊辰諸賢全湖堂

翰林直提學六曹

叅議都承旨 一

五一九年己卯又

救趙靜菴光祖坐

黨斥事蹟載己卯

錄及國史同一五

二三年癸未十二

月二十四日卒

贈大司憲諡廉簡

墓親塾局乾坐巽

向 碣銘墓齋金

安國撰 神道碑

銘順庵安鼎福撰

配全州李氏

子守厚 수후

字務重

一五一一年辛未生

活人署別堤漢城

叅軍 一五三七

年丁酉四月二十

日卒壽二十七墓

親塾階乾坐

贈通禮院左通禮

配全州李氏

父甄城君惇 墓

附公右

配全州李氏

父都承旨世璋

祖評事穆正月十

六日卒墓附公左

墓表只曰宜人完

山李氏則何便爲

前後配未詳

歲享祀每年十月

五日 有床石

子麟壽 린수

字祥叟

一五三二年壬辰二

月十五日生

六典州郡司導寺

僉正

一五九二年壬辰九

月四日卒墓親塾

階乾坐 有表石

仁祖朝贈承政院

左承旨兼經筵叅

贊官春秋館事

配木川尚氏

父判官鵬南 祖

領相震 一五九

一年辛卯八月二

十五日卒墓乾位

雙墳 歲享祀每

年陰十月五日

子思敏 사민

字德明

一五四七年丁未六

月十一日生

宣務郎

一五七三年癸酉

四月六日卒墓親

塾階乾坐有床石

配朔寧崔氏

八月十一日生

父叅顯 正月一

日卒墓乾位雙墳

歲享祀每年陰十

月五日

子思敬 사경

字德興

一五五〇年庚戌七

月二十九日生

一五七八年戊寅

扶餘縣監

一五九四年甲午

二月二十二日卒

墓扶餘郡恩山面

子弘輔 홍보

見二卷十一頁

子弘佐 홍좌

見二卷一七頁

子弘佑 홍우

見二卷二九頁

子弘任 홍임

見二卷三七頁

十三、跋 文

우리 東萊鄭氏 執義公派譜는 初刊이 一九二七(丁卯)年이고 再刊이 一九五六(丙申)年이며 그 다음에 刊行된 譜冊으로는 一九七八(戊午)年에 刊行된 昭平 佐郎 參議 등 三派合譜인 戊午年 縱(출)譜가 있고 副正公派에는 一九七六(丙辰)年에 刊行한 丙辰年譜가 있습니다.

그러나 昭平 佐郎 參議 등의 戊午縱譜의 경우에는 그 刊行目的이 冊名을 『金石集』이라 定하고 金屬物體(金)에 依하여 發行된 印刷物이나 돌(石)에 새겨진 碑誌文과 行狀等を 蒐集刊行하는 것이 主目的이었고 다만 그 文集에 子孫錄을 붙여서 冊名을 『金石集世譜』라 하여 發行했던 것이나 入譜者의 先後系代가 按譜에 어려움이 있다는 폐단이 지적되고, 副正公派의 丙辰派譜는 순수한 副正公派譜일 뿐이고 다같이 名實相符한 執義公派譜가 아니라는 것이 世間輿論이었습나다.

또한 우리나라는 世界的으로 優秀한 『한글』이 있음에도 先來로 漢文을 崇尚하는 인습으로 漢文文化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歷史의 흐름속에서 漢文文化가 한글문화로 變貌하고 國民生活樣相이 現代化되고 있는 추세에서 族譜文章이 젊은 世代에서 알기 쉽게 改修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必然的欲求로 登場하고 內容수록에 있어서도 例컨대 男子本位の 族譜를 女權伸長을 考慮하여 婦女子收錄의 意見이 지배적이며 年號使用에 있어서도 西紀年號가 世界的으로 通用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年號가 國家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에 中國年號를 崇尚한다거나 數値를 분간하기 어려운 朝鮮年號 또는 干支年號만을 使用해 왔음은 是正되어야 한다는 것

이 現代의思潮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乙酉年光復以後로는 各氏族間에 『新時代族譜』研究가 활기있게 추진되어 族譜文化의 새時代가 열려가고 있었습나다.

우리 東萊鄭氏執義公派門中에서도 例外없이 宗人들간에 이러한 추세에 알맞는 族譜刊行에 對한 意見이 擡頭되어 왔지만 다만 戊午年縱譜 또는 丙辰年副正公派譜 등이 障礙要因이 되어 新刊譜 編刊이 주저되어 오다가 一九八五(乙丑)年十一月에 宗中決議로 執義公齋室建築工事의 施工計劃이 확정되고 執義公齋室建立推進委員會가 創設되어 齋室建立基金募金運動을 전개했으나 所期한 成果를 거두지 못한 狀態에서 一九八九(己巳)年三月七日字로 齋室建立起工式을 거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때로서는 齋室建立工事를 完工할 수 있는 資金調達에 憂慮가 농후하면서도 基金募金運動의 便法으로 起工式을 舉行하자는 一部階層의 主張으로 그러한 모험을 자초했으나 이 方法은 到底히 無理임을 覺悟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었습나다.

그러므로 또다른 組織機構를 通한 建立基金募金方法의 便法으로 構想된 方案이 『執義公派譜 編纂委員會』의 構成案이 擡頭되어 齋室建立起工式과 같은 날인 三月七日 午後에 갑작스러운 『東萊鄭氏執義公派譜 編纂委員會 創立總會』가 열려서 贊反激論끝에 多數決原則에 따라 英秀 總務委員을 族譜編纂 主幹으로 하는 編纂委員會가 創設되어 이로써 執義公派譜刊行事業은 齋室 建立工事와 함께 執義公派門中의 二大重要事業의 하나로 부각되어 推進되어 왔습나다.

그리고 派譜編纂委員會에는 任員會가 構成되고 族譜編纂에 關한 諸規程과 族譜編製方式이 確定된 뒤에 各派別로 任員들이 分擔하여 齋室建立基金募金運動과 아울러 自派의 入譜單子 修單과

族譜原稿作成에 이르기까지에 各派專担任員들과 數만은 宗中員들의 奉仕的活動으로 이루어졌고、本會에서는 이를 契機로 一九九〇年三月十一日에 서울 鍾路區 清進洞에 編纂委員會 譜所를 設置하여 世譜의 編輯·校正業務를 淳謨委員 權謨委員 兢秀委員 등 三人이 子孫錄修譜를 專担하고 後日에 大田 苾秀委員이 加勢하여 族譜의 編輯과 校正業務는 그 四人이 모두 마쳤으며 先代事業績研究와 原文 翻譯에 關한 業務는 亮秀委員이 專担하였던바 譜冊編輯에 이르는 事實上的 尨대한 業務가 終結된 것은 이듬해 一月下旬頃이었습니다。

先代事跡發掘에 있어서는 亮秀委員의 투지로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古代史書를 비롯하여 歷代의 史籍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史蹟발굴에 크게 기여했고、또한 族譜에 對한 先來의 관심이 『族譜는 解讀이 어려우므로 다만 後世에 傳授하기 위한 譜冊』으로 保存되어 왔던 폐단이 있었음을 考慮하여 이번에 刊行되는 辛未派譜에는 原文과 함께 翻譯文을 修錄하여 從來의 폐단을 깨고 『現世必讀을 겸한 傳授譜冊』이라는 保存개념의 變化를 期할 수 있는 轉機가 될 수 있다고 自負할 수 있었으며 族譜印刷業體 選定에 있어서도 全國적으로 散在한 印刷業體에 對한 族譜刊行實態를 調査하여 그 中에서 實蹟이 透徹한 印刷業體 六個社를 內定하여 이를 指名競爭方式으로 競選하여 다음해 一月三十日字로 大田市東區 中洞의 族譜印刷 專門業體인 回想社代表 朴泓九社長과 印刷契約을 締結하여 會社側의 配慮로 特殊製紙에 뛰어난 印刷技術과 傳統的方式의 難工程의 製本을 거친 漢裝族譜 每帙當 十卷式 總二千三百帙의 譜冊이 完成되어 이를 一九九一(辛未)年十一月十五日(음十月十日) 執義公享祀 記念出版物로 發行하니 이 譜冊은 一九五

六(丙申)年에 刊行된 丙申譜에 이어 우리 執義公派의 三重刊譜입니다.

이 족보를 펴내기에는 편찬위원회가 창설된 뒤에 二年半의 歲月이 걸렸고 이에 從事한 沂秀 副會長을 비롯한 任員數만도 百餘名에 이르며 이밖에도 이 族譜가 發行되기까지에 協助한 宗人數가 不知其數이니 참으로 이 族譜 한帙을 펴내기 위하여 舉族的인 힘을 기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頒帙對象에 있어서 族譜頒帙申請部數의 未洽으로 宗人 家家戶戶마다 모두 頒帙되지 못한은 遺憾이나 子孫들의 閱覽에 便宜를 圖謀하여 東萊鄭氏宗約所을 비롯하여 全國有名圖書館과 美國 日本등의 代表的圖書館에 一帙式을 藏書로 保存토록 하였으니 後日에 누가 어느 곳에서라도 손쉽게 閱覽이 可能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습니다. 感謝합니다.

一九九一(辛未)年十一月十五日

東萊鄭氏執義公派譜 編纂委員會

主幹 總務委員 東隱 英秀 謹識